

# 충현특보

발행처: 평안북도  
강령시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승현 편집국장: 조선근

## 김성관 담임목사 괴한들에 피습

지난 1월 17일(월) 새벽 2시경 자택에서  
온 몸을 몽둥이로 난타, 교회 떠나라 협박  
김의철 노광현 김재명 장로 집에 가족몰살 협박전화

김성관 담임목사가 두 세명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 온 몸을 몽둥이로 얻어맞으며 교회를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다.

### 사건의 경위

지난 17일 월요일 새벽 2시 경 김성관 담임목사 자택에 두 세명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경찰은 현관문 열쇠구멍 등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관문에 꼭 맞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회장의 집안 일을 돕고 있는 이희수 권사의 눈과 입을 막고 머플러 등으로 이권사의 손을 묶은 후에 이불로 덮여있었다. 또, 김목사 침실로 들어가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가렸다. 김목사는 이들을 강도라고 생각하여 '저는 충현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괴한들은 '알고있다' 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목사가 '4시 30분에는 새벽예배를 인도하러 가야한다' 고 말하니 괴한들은 '그것도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이후, 괴한들은 테이프로 김목사의 눈을 붙여 가리고 손발은 꽂공 묶었다. 김목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고 했고, 이들은 김목사의 사람 밑 지갑 등을 뒤져 현금 40만원과 미화 200백 달러, 그리고 김목사의 사진이 있어 사용할 수 있는 미국수표책, 크레디트 카드 등을 탈취했다. 그러나, 괴한들은 이내 돌변하여 테이프로 김목사의 입을 봉한 후, 소리를 지르며 말도 못하게 칼을 대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했다. 이들은 김목사를 향해 '너 때문에 교인들이 몇천명이나 줄었다. 충현교회를 떠나라', '지난 주에 널 죽이위해 미행했지만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 '네가 떠나지 않으면 노광현장로, 김재명장로, 김의철장로를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몽둥이로 김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김목사는 맞는 중에 '이희수 권사님께는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 '장로님들께도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 고 간곡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괴한들은 마치 전문적인 테러범들 처럼 상처없이 끝낼듯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계속해서 김목사의 전신을 내리치면서 '떠나겠다'는 말을 받아내고자 했다. 이에 김목사는 거명된 장로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떠나겠다고 응했고, 이에 범인들은 김목사 자택을 떠났다.

범인들이 떠난 후, 이희수권사는 머플러에 묶인 손을 풀면 후, 급히 일어나 김목사의 손에 묶인 줄을 가

위로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성관 목사는 교회와 장로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주님을 찾았다. 후에 김목사는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편했다.' 고 전했다. 김목사는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와 교회에 도착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모습으로 새벽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오전 7시경 김재명 장로와 노광현장로에게 전화를 걸어 자조지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함께 강남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상황을 전술한 후 다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다. 한편, 범인들은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로 임시당회가 모이고 있는 시간에 김의철 노광현 김재명 장로 집에 전화를 걸어 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선교위원장, 당회서기, 행정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본인 권사들을 협박함으로 심리적 충격을 가했다.

### 담임목사 상황

김성관 담임목사는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피부조직 안으로 심한 출혈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김목사는 3주간의 치료기간을 갖기로 하고 현재 입정환 장소에서 요양을 중이다.



▲ 경찰조사시 찍은 상처부위들

### 대책

사건 당일 저녁 당회원들은 긴급히 임시당회로 모였다. 그리고 범인의 조속한 체포를 위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처리키로 결의하는 한편, 김성관 담임목사에게 3주간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속히 성도들에게 알려 온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19일(수) 수요 12부 예배 및 21일(금) 금요찬양집회 등을 통해 성도들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광고하였다. 또한 오늘 5부에배후 임시당회를 열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찬양에 배 후에는 임시제직회를 열어 제직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광고키로 하였다.

한편, 교역자들은 20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긴급 기도모임을 가지고서 김성관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길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구위원회에서는 내일(24일)부터 온 교회로 모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각 교구별로 협력키로 하였다.

### 기도합시다

1. 온 교회가 가슴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앞에서 영적책임을 가지고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 온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를 수 있게 하시고, 이 기회를 틈타 사탄이 성도들 안에서 삼호비방과 악한 모략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불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3. 김성관 담임목사의 영육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범인들이 빨리 체포되어 모든 의혹이 제거되고 이를 계기로 교회의 반목과 불신이 척결되어 온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